**2024 년 3 월 17 일 "(아바드의 사람들 10) 이렇게까지 사랑에 붙들리다"(호 2:14-20)**

사랑의 선지자로 불리는 호세아가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호세아의 시대와 사역**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었던 시기에 북쪽에서 활동했습니다. 북 왕국은 크게 네 시기(722BC 앗시리아에 망함)로 나뉘는데, 호세아는 마지막 시기 30 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바알을 좇아 하나님을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이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 언약의 사랑을 증거하였는데,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사람들의 일반적 오해는 사랑은 마음이고 감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해 좋은 감정과 희생할 마음이 있더라도 아직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실제로 사랑은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나의 의지적 베풂과 행위를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물리적, 경제적, 교육적, 정서적으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돕고, 섬기고, 지켜주고, 공급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생각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시는 행동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요일 4:9-10). 주님은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고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학의 요점'이라고 말했습니다.

**[3] 호세아 시대엔 어떤 사랑이 필요했습니까?**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알 산당을 세우고, 이교적 국가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나라의 풍요를 위해 성전 매춘의식을 공공연히 행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무시와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음행을 저지르는 아내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호세아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하시며, 이 모습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1. 호세아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며, 그 사랑은 자신과 온 백성을 향한 최고의 축복임을 알았습니다(4:1; 6:3 참고).

2. 호세아는 이 사랑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었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최고의 숭고한 삶을 살았음을 확신하며 경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자기의 결혼이 수치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라고 의아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지라도, 사랑하고 보니 삶의 축복의 진수를 누리게 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가치가 격상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존재이신 지를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행함으로써 숭고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호세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2. 내가 오늘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결과는 무엇일지 말씀해보세요.